

# 10년째 이어온 따뜻한 동행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지역본부  
장애인 건강검진 사회공헌활동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지역본부는 10년간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맞춤형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장애인 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왔다. 이 활동은 단발적 봉사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의 모델이다.

글 정지에 경기지역본부 사내기자



## 10년간 이어진 선한 영향력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로에 위치한 흥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주간 이용 시설로 일상생활 지원과 사회참여를 돕고 있다. 45명의 직원 중 35명이 사회복지사로, 1인당 3명의 장애인을 세심히 돌보며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산업보건협회가 흥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시작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지역사회에 보건의 손길을 전하고자 시작한 이 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장애인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로 자리 잡았다.

지승유 건강진단국장은 “이 무료 건강검진은 협회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활동으로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건강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김병득 경기지역본부장은 “장애인 건강관리는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협회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

흥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건강검진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세심한 준비와 배려가 필요하다. 최종일 차장은 “장애인 검진은 일반 출장검진보다 준비할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변검사가 어려워 사전에 시료채취 물품을 보내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혈이 쉽지 않아 경력직 중심으로 인력을 구성하고, 사회복지사와 봉사자들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장 채혈팀은 “장애인들의 움직임이 많아 한 번에 끝내야 한다는 부담이 크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고 전했다. 신체계측팀은 “혈압이나 허리둘레 측정 시 놀라거나 긴장해 다칠까 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문진을 담당하는 의사도 “대부분 중증 장애인이라 보호자와의 소통이 필수”라며 검진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흥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김민수 시설장은 “시설에는 상주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평소 상처나 행동 변화를 세심히 관찰하고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뇌전증 환자는 발작 여부나 자해·타해 행동을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회의 정기 건강검진은 돌봄 서비스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자와 면담하며 협력할 수 있고, 만성질환자 관리도 훨씬 수월해져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 지역과 함께 자라는 사회공헌의 모델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경기지역본부의 흥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무료 건강검진은 10년 동안 이어온 ‘선한 영향력’의 실천이다. 단발적 봉사가 아닌, 협회의 전문성과 진정성이 담긴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의 본보기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협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향한 동행을 이어갈 것이다. 🍀